

그래 그래 어쨌든 하여간에, 모든 것은 지금여기 뿐

허창욱 박사(주)한마음 에너지 과학연구소)

사람의 한평생 70여 년의 삶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한없이 짧은 것이련만….

선생이 걸어오신 그 70여 년의 세월을 나는 결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이 선생과 깊은 유대를 갖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몇 년 동안의 시간은 어쩌면 그분의 한평생을 총정리하는 의미와 활동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1994년과 95년도에 내 개인의 삶에서도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던 해였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LG첨단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당시에 나와 몇몇 과학자들은 가정 <정신과학>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자그마한 동우회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애초 생각과는 너무나 빠르게 불과 일 년이 채 안되어 이 모임은 사단법인 한국정신과학학회로 발전되어 갔는데….

94년 10월에 대전 유성에서 정식으로 사단법인 한국정신과학회사를 발족하고 난 후에 이 모임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회를 관리하고 또 이러한 활동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다. 결국 95년 2월에 나는 LG기술연구원을 그만두고 학회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동시에 나보다 두 달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학회 일을 전담했던 P박사와 함께 두 사람이 핵이 되어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를 창립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근무하고 있던 연구소의 상사와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게 미쳤다고 말하였다. 앞날이 환하게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짓을 하려는 것이냐고….

실제로 나 자신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한번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아 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러한 현실을 크게 패념치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혼자만의 정열과 의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2년 여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가는 동안, (사)한국정신과학회사는 공식적인 학회로서 제 자리를 찾았고 또 재단법인 연구소는 간신히 그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점입가경이라, 97년 2월에 나는 또 다시 대전을 떠나야만 하였다. 그동안 학회와 연구소 창립에 쏟은 시간과 열정을 모두 다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상황에 대하여, 나 자신이 그때의 상황을 일일이 표현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내가 P박사 그리고 나로 인해 연구소에 몸담게 되었던 후배 Y와의 인간적인 불화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정신과학연구소를 떠나간 것으로 주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말았지만, 여하간 그 이후 나와 아내가 겪은 심리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실로 참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격동의 세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실로 잊기 어려운 귀한 인간적 만남들이 새롭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대행 큰스님의 한마음선원과의 인연 그리고 바로 미내사의 최산 선생님과 그의 긴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늘 진실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취산 선생님과 95년도에 대전 정신과학학회 사무실에서 가볍게 첫 대면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선생께서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정신과학적인 주제를 소개하는 전문잡지를 본격적으로 출간 하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준비중이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신과학학회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 게 된 것이었다.

96년 1월에 들어서서 미내사 모임이 시작되어 <지금여기> 잡지가 발간되었고, 그 이후로 나 자신은 개인 적으로 이 잡지의 편집위원 역할을 맡아 취산 선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까지는 아직 실제적으로 긴밀한 인간적 만남은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선생의 면면을 그나마 깊게 알고 느 끼게 된 것은 그 이듬해인 97년도에 이르러서이다.

그 당시 나를 비롯해 KIST의 김재수 박사, 정문조 박사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의 방건웅 박사 등이 중심 이 되어 97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간에너지 신기술 기획조사 연구과제'라는 제목으로 신과학과 신기술들의 세계적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 과제를 과학기술처에 올려 이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두 번의 미국출 장과 두 번의 일본출장을 다녀와야 했다.

일본의 현황 조사를 위해서 취산 선생을 이 연구 과제의 자문으로 모셨는데, 결국 97년도에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나와 선생은 일본 전역을 여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어 실력이 형편없었던 까닭에 나는 일본을 탐 방하는 한달 여의 시간 동안, 잡자는 시간 너댓 시간을 빼고는 선생의 바로 옆에 항상 붙어있어야만 했다. 따 라서 신칸센 열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도, 그리고 밤늦게 일본 선술집에서 스시를 시켜 놓고 정종을 마시던 시간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명상과 정신세계, 그리고 뉴에이지 신과학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 도 많이 나누게 되었다.

미내사 모임과 그리고 선생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 아바타 의식개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 하고 소개한 공적이 바로 선생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선생 자신의 개인적인 통렬한 체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소위 정신 세계에 눈을 돌린 그의 젊은 시절부터 선생은 경제적으로는 극한의 궁핍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었다. 그 때의 힘든 상황을 선생은 남의 일처럼 담담히 아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때는 둘째 딸애도 태어났을 때인데,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짜증스러워서 인상을 계속 찌푸렸던지 어느날 거울을 보는데 실제로 미간에 깊은 골이 파여 있더라 말이여..."

고통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 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법이다. 삶에 얼마나 지치 면 햇빛 보는 것조차 귀찮아지겠는가.... 하지만 그 모든 상황도 결국 자신의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것!

진실로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뀐다는 아주 단순한 도리를 선생은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실하게 체험한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왜 웃을 수 있을까? 힘든 상 황에서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아이러니한 메카니즘을 선생은 정확히 짚 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전일적인 변성이 동시에 체험되지 않으면 수백 번의 아바타 프로그램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관념의 유희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견이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역정을 듣고 난 뒤에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어쨌든 여하간에 모든 것이 '지금 여기(Here and Now)' 그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되지..."

나 자신은 대학 시절에 요가 명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신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십 수년의 세월 뒤에야 신과학을 탐구하는 진보적인 과학자 입장에서 최산 선생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여러 정신 세계와 아바타를 거친 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왜 또 새로운 정신세계 정보들을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던가? 그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그 취지를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미내사(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들에게 선생이 남기고 싶은 말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일본을 함께 탐방하던 시간 동안에 선생은 칠순 고령의 나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체력과 정열을 내내 발휘하고 있었다. 97년 8월에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던 도중에서 '연세를 생각해서 이제는 좀 쉬엄 쉬엄 일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나의 말에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글쎄, 요즘은 내가 생각해도 내 몸이 아니라 꼭 내 속에서 누군가가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몸이 지치지 않는다 말이여...'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오히려 불길하게도 이 지상에서의 선생의 이번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을 탐방한 지 얼마 안되어 97년 가을, 선생은 다시 저 멀리 러시아를 다녀왔는데-창칸첸 박사의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바로 그 직후 창칸첸 박사의 국내 강연(97년 겨울)에서 기술 도입 협상이 뜻대로 성사되지 않아서 못내 서운해 하셨다.

이어서 97년 말에 미국을 다녀오시겠다고 건너가신 뒤로 선생은 결국 병석에 눕게 되셨고 그 이후로 계속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올해 9월에 들어와 선생께서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가셨다는 부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는 그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자주 문안인사드리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과의 깊은 인간적 만남 그 자체는 여전히 생생하게 아직도 살아있음을 절실히 느낀다.